

올 영암 F1대회 본격 시동

10월14일~16일 3일간 16번째 라운드

이달 구매자 티켓가격 50%까지 할인

서틀버스 늘리고·관광 크루즈선 운행

“10월 14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24대의 F1 머신이 출력을 최고로 높이며 서킷을 뛰쳐나간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16만5000여명의 관중이 내지른 함성은 하이톤의 엔진 굉음에 묻혔다.”

대회 평균 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고 연간 관람객만 400만명, 전 세계 188개국 6억명의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 중 하나인 코리아 그랑프리가 3일로 개막을 227일 앞두고 ‘폭풍 질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10월14일~16일, 20개 라운드 중 16번째=코리아 그랑프리는 총 20라운드로 치러지는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의 16번째로 오는 10월 14일~16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예초 17라운드도 열릴 예정이었다가 바레인 대회가 시위 사태로 취소되면서 16라운드로 변경됐다. 바레인전은 아예 취소될 지, 연기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4일부터 3일간 펼쳐지는 일정 중 첫날인 1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5일 오전 11시 연습주행에 이어 15일 오후 2시부터 1~10위 출발 순서를 정하는 예선전을 거쳐 16일 오후 3시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진다.

결승전은 서킷(5.615km) 55바퀴(총길이 308.825km)를 돌아 가장 먼저 파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대중화 위해 티켓 가격 대폭 인하=지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티켓 값은 평균 46만원 수준이었다. 메인그랜드스탠드 전일권(모든 경기 관람)의 경우 최고가는 101만2000원, 최저가는 19만8000원으로, 국내 스포츠 티켓 중 최고가였다. 젊은층을 비롯, 서민들에겐 부담스러운 수 밖에 없었다.

F1대회조직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가격합리화’와 ‘맞춤형 할인정책’에 초점을 맞춰 올해 대회 입장권을 전년에 견줘 평균 30% 낮춰 평균 입장권 가격이 31만5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일권의 경우 최고가 티켓은 89만원으로 책정됐고 좌석별로 18만원~69만원까지로 정해졌다.

결승전이 열리는 일요일권도 지난해(최고가 75만9000원·최저가 14만8500원)보다 인하된 72만원, 14만5000원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토요일권(지난해 최고가 65만7800원·최저가 12만8000원)도 각각 46만원(최고가), 8만7000원(최저가)로 내렸다.

총 9종류에 달했던 좌석별 가격을 5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연습경기와 준결승전, 결승전을 모두 관람할 수 있을 정하는 예선전을 거쳐 16일에 경주차 30% 정도로 줄이고 하루만 관람하는 일일권 비중을 70%까지 늘린 것도 새로 바뀐 판매 전략 중 하나다.

초기 구매자들을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장이다. 이달에 구입하는 선착순 1만명에게는 준결승전이 열리는 토요일권을 50% 할인된 4만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교통·숙박, 업그레이드=지난해 큰 불만을 샀던 경기장 주변 교통 및 숙박 문제가 훨씬 나아진다. 조직위는 우선, 지난해 서틀 버스가 부족해 관람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교통문제의 경우 경주장 진입로로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개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승 주차장과 서틀버스 운영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러브호텔’논란을 일으켰던 숙박문제도 업그레이드된다. 조직위는 경주장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숙박시

설 3946곳에 5만9269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템플스테이와 홈스테이 같은 체험형 숙박 시설과 골프텔 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크루즈선 도입을 추진, 관람객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갖춘 전남 관광 코스를 소개하면서 숙박, 교통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문 조직위 사무총장은 “숙소 청결 문제나 친절, 통역 부분은 작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는 한옥 민박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캠퍼장을 확대하는 등 숙박 문화를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식 기획본부장은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경주장 인근 지정숙소 20개를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결과 17개가 유럽 3성급 호텔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는 이날 연에인 드라이버인 이세창, 이화선, 한민관씨와 관람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입지들기자 dok2000@kwangju.co.kr



2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그랜드 론칭쇼’에서 참석자들이 티켓 오픈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 권오상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연합뉴스

“과학벨트 분산 배치해야 시너지 효과”

강운태시장 “지진에 안전한 광주가 최적지”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분산배치에 반대하는 과학계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내륙 삼각벨트를 주장해 온 강 시장은 2일 직원 정례대회에서 “일부 과학계가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한 분산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이기 이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최근 일본의 선진 기초 과학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산하 고배연구소를 방문한 결과 해답은 지역 분산배치였다”며 “5개 연구소를 지역별로 분산배치해 특화된 결과 노벨상 수상 과학자를 9명이나 배출한 이화학연구소의 사례를 과학계는 주

목해야 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도 최적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과학벨트에 설치될 ‘중이온 가속기’는 조금만 흔들려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지진에 가장 안전한 광주가 최적지”라며 “일본도 대형 실험설비는 안정성을 고려해 부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7개 과학 관련단체가 최근 과학벨트 분산배치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과학 관련단체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은 애초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형제·부부군수 집안 4번째 승부?

화순군수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 행보 본격화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형제군수’ ‘부부군수’로 잘 알려진 두 전직 군수 집안의 4라운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부·형제 군수로 불리는 전직 군수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출마 예정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형준 전 군수(전완준 전 군수의 친형), 임호경 전 군수, 구충곤 전남도립대 총장, 홍익식 전남도의원, 배동기 전 부군수, 최병민 전 광주 지방경찰청장, 이윤모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전형준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를 누르고 군수자리에 올

랐지만, 취임 한 달만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임했다. 전 전 군수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됐다. 임 전 군수도 200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하지만, 2008년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에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전완준 군수에 밀려 낙선했다.

따라서 이들 두 집안이 정치인 특별 사면·복권이라는 정부의 ‘큰 은혜’를 입고 또다시 이번 보궐선거에서 4번째 진검 승부를 하게 되는 셈이다. 세 차례의 승부에서는 모두 전씨 형제들이 승리했다. 하지만, 임 전 군수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두 집안의 4라운드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민주당 복당을 통한 경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충곤 전남도립대 총장은 지난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보선 예비후보 벌써 9명

민주 김영득·민노 김선득 출마 선언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2일 현재 예비후보만 9명에 달하고 있다.

김영득(51·전 민주당 대변인)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회복, 남북간 민간 교류와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우겠다”며 “순천을 환경·경제 중심도시, 문화·교육 중심도시, 건강·복지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연대’, ‘민주당 무공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후보인 김선득(43) 예비후보도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연대 실현을 통해 총

선,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천을 교육·문화·친환경 생태도시로 더욱 발전시켜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 및 시·도의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선관위에는 4·27 순천 보선과 관련, 이날 현재 예비후보로 이들 2명을 비롯한 박상철(51·경기대 교수), 안세찬(49·전 민주당 순화규 대표 특보), 구희승(48·변호사), 허신형(68·전 농림부 장관), 허상만(67·전 농림부장관),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재환(62·전 민주당 의원) 후보등 9명이 등록한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를 맡으며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식, 후원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순천고(31회), 서울대 법대(82학번)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4기) 수료
광주지법, 광주지법 해남지원, 광주지법 가정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변호사 조재건 올림
■업무개시: 2011년 2월 22일
■개업장소: 순천시 월자동 870-4 거형빌딩 2층
■대표전화: (061) 727-7099
■개업소년: 2011년 3월 7일(월) 17:00부터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다음에서 현대애드를 검색해보세요.

modern 현대애드 검색

Living in Design
현대애드 Design
www.hd-ad.co.kr



- 인세 칼라명함 · 스티커 · 카다로그 · CI BI · 전단 · 팸플렛 · 안내장 · 각종양식인쇄
- 광고 마우스패드 · 상패(기념패) · 프랑카드 · 포스트잇 · 자석 · 스티커 · 타올 · 행사기념품
- 도장 법인도장 · 일반목도장 · 인감도장 · 고급도장 · 사각직인 · 계인 각종 고무인

답례품 - 인터넷/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전화상담 가능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4-12번지(코밀빌딩 건너편 양림다리 앞)

TEL : 062)526-8500~1 | FAX : 062)526-8505

특판사업부 : 062)514-2002 | 금호빌딩지점 : 062)3500-123

E-mail : 8500hd@hanmail.net | http://www.hd-ad.co.kr